6시간 동안 여성 2명 연쇄 살해

광주서… 전 직장동료 성폭행·살해후 여친까지 죽인 30대 체포

6시간 만에 직장동료였던 두명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5일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 후 살해하고, 수시간 만에 자신의 내연녀마저 죽인 김모(34·광주시 북구 삼각동)씨를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5~6시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전 직장동료인 A(20)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밤 아파트 베란다 뒤 빨래 건조대에 기댄 자세로 숨진 채 김씨의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오후 4시54분께 A씨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오후 6시35분께 홀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김씨는 전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A씨가 재발급 절차를 문의해오자 '도와주겠다'며 광주시 북구의 한 지역에서 만난 뒤,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 후 곧바로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에 사는 내연녀 B(40)씨를 찾아가 차에 태워 인근 교회 주차장에 데려간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지갑에서 1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살해한 두 여인과 함께 한때 같은 물류회사에서 일해오다가 지난해 말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 B씨와도 헤어지게 될 것 같아 동반 자살하려다가 B씨만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차 범행을 마친 뒤 1차 범행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숙박업소에 있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했고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 오전 시간대 담양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5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용전동을 지나다가 출근 중인 경찰관에게 차량 번호가 적발됐다. 김씨는 순찰차를 따돌리며 담양 봉산면 쪽으로 달아나다가 좁은 농로에 가로막히자 차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한편 김씨 검거를 위해 검문중이던 담양경찰서 경찰관 1명이 김씨의 차량에 치여 다치기도 했다.

김씨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2011년 출소하는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과가 많은 김씨가 A씨와 성관계 후 두번째 성관계를 하려하자, 소리를 지르며 거부한 데 흥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일 오전 전 직장동료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내연녀마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모(33)씨가 경찰에 붙잡혀 광주북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교육지표' 연루 9명 35년만에 무죄

신일섭·정용화 씨 포함

유신체제에서 발생한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된 9명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교육지표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들은 김경천(김천과학대 총장) 전 국회의원, 정용화 전 광민회 대표, 신일섭 호남대 교수, 박현옥·이영송(이상 교사)씨, 안길정(대학강사)씨, 최동렬(변호사 사무실)씨, 박병기 전남대 연구교수, 고 노준현씨 등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지난 1978년 6월 27일 전남대에서 김득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배영남·송기숙·안진오·이석연·이방기·이홍길·홍승기 등 교수 11명이 유신 체제 민주교육 헌장을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며 저항한 사건.

당시 교수들은 인간 존중의 교육, 교육자의 양심에 의한 교육, 외부간섭 배제·구속학생 석방, 3·1정신과 4·19 정신 계승 전파 등을 다짐했다.

교수 11명은 모두 해직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 송기숙 교수와 연세대 성내운 교수가 구속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다수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케팅 지침서' 만들어 보이스피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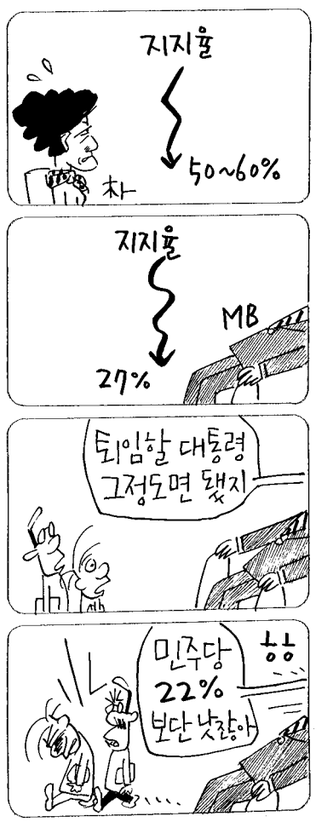
檢, 60명 거대조직 검거

전문화·세분화된 조직원 60명이 치밀하게 움직이는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검찰에 통째로 덜미를 잡혔다.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이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국내에 기반을 둔 대규모 조직의 전체 윤곽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보이스피싱으로 2333명의 피해자로부터 3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 60명을 입건, 이중 구속한 10명을 포함해 50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10명을 기소중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메시지·전화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사기조직 ▲범행에 쓸 대포통장·현금카드를 만드는 조직 ▲대포폰을 공급하는 조직 ▲현금 인출 담당조직 등으로 분화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연합뉴스

나원참



신생아 유기 4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5일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김모(여·41)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밤 10시께 서구 한 대형마트 유아 휴게실에 생후 5일된 여아를 유기〈광주일보 4일자 6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모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뒤 양육에 부담을 느껴 신생아를 대형마트에 놓고 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기는 건강한 상태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주 일가족 3명 살해범'

경찰 외삼촌이 증거인멸 도와

부모·형 명의 20억대 보험

전주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박모(25)씨의 경찰관 외삼촌이 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먹인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사실을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외삼촌 황모 경사에게 알렸다.

황 경사는 박씨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황씨가 증거인멸을 도와준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조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조언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친족관계인 황 경사는 '친족의 경우 범죄 고지 의무가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관으로서 중대범죄 사실을 숨긴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보험금이 20억원 대로 밝혀져 박씨의 범행 동기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은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55)씨가 각각 11개이며, 형(27)이 10개로 모두 30여 개에 달한다.

다만 둘째아들 박씨가 보험을 가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보험 가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또 불량 경찰…

담양경찰 경사 도박 현장 적발

현직 경찰관이 도박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이 비리 방지 및 부패 척결을 내걸고 수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중간 간부 교육 등을 실시한 뒤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자정능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담양경찰서 소속 김(46)모 경사는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건물에서 지인들과 '훌라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에 적발됐다.

북부경찰은 김모 경사를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경찰서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특히 김모 경사의 도박 사건은 수차례의 토론회·회의 등을 열고 비리 행위 방지 대책을 모색한 뒤 발생한 탓에 경찰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지난달에만 모두 세 차례(4·7·8일)에 걸쳐 중간 관리자급인 경감·경정 등을 대상으로 비리 방지를 위한 교양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경급 이상 지휘부들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두 차례(26·28일)나 실시했고 지방청 소속 경위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토론회(27일)도 개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정능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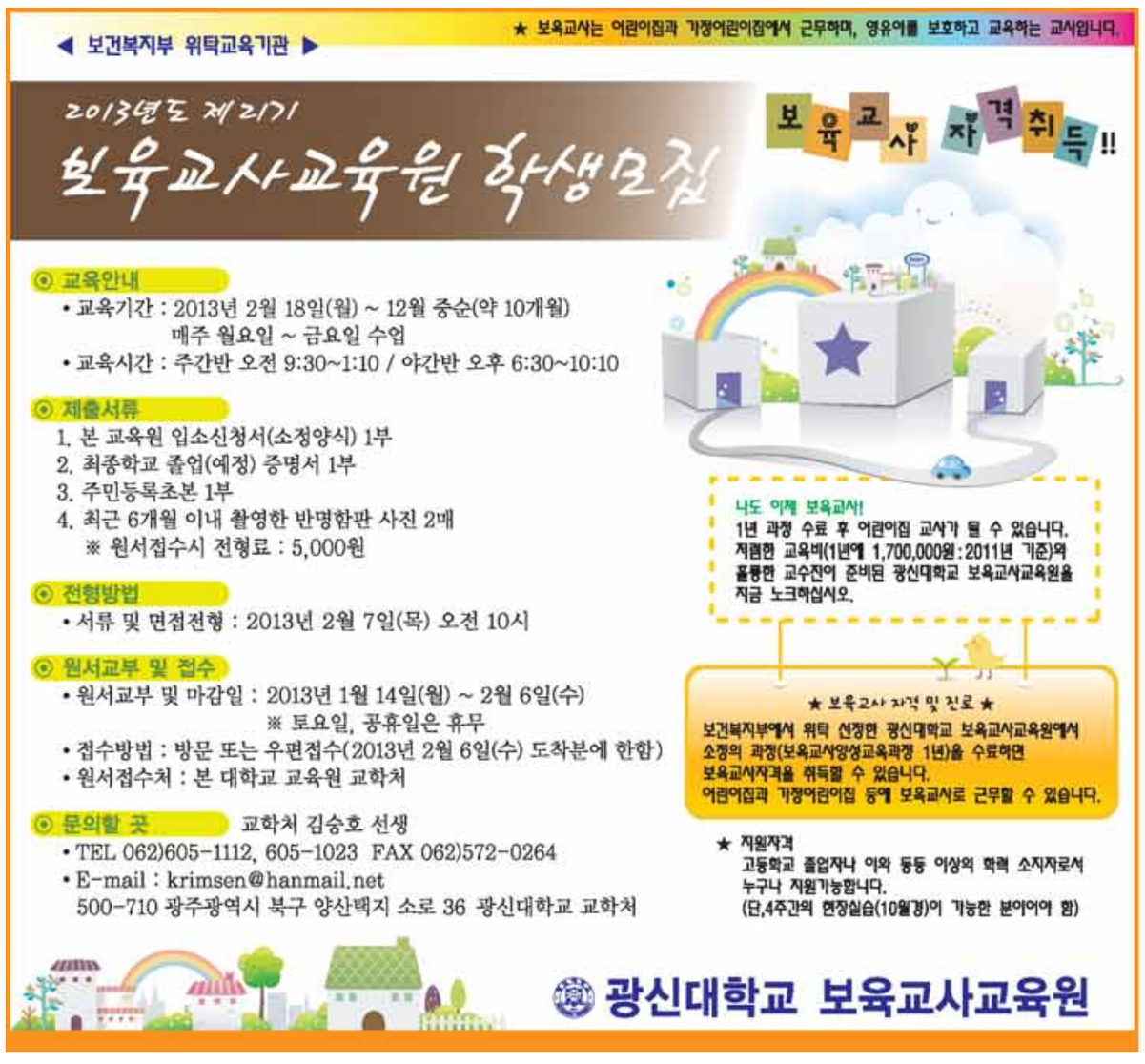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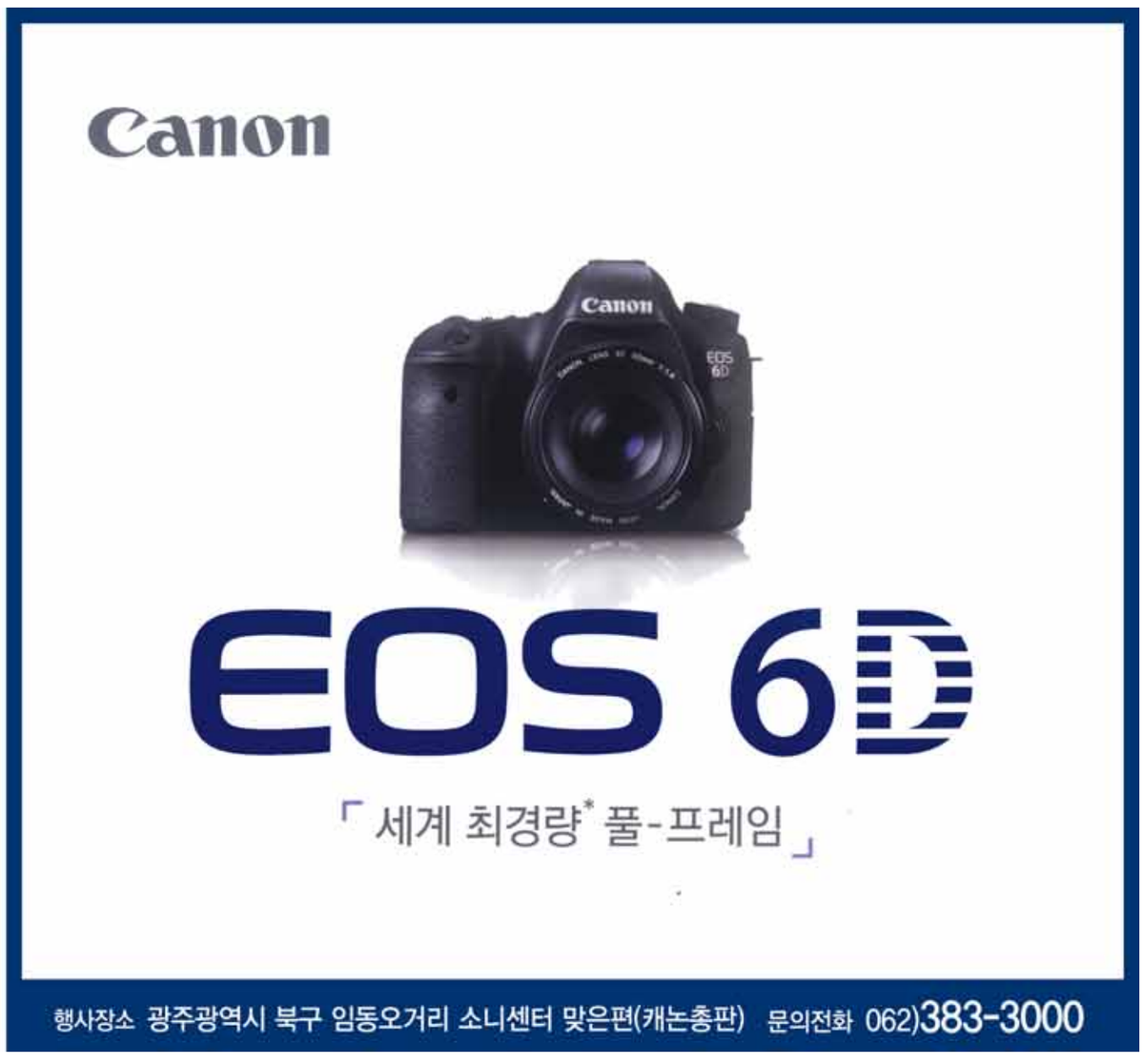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큰스님 행세하며 무전취식 일삼아

쌍나팔

○…화순경찰은 최근 스님행세를 하며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러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모(45)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월 31일 밤 10시께 화순읍에 있는 한 주점에서 유명사찰의 큰스님 행세를 하며 양주 등 9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는 등 광주 시내 주점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 10년간 상습사기 혐의로 8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화순=조성수기자 css@